아픈손가락서 알짜수익 효자로

저축은행 라이벌 열전

❶ 지주계열
신한·KB·하나·NH저축은행

금융지주계열 저축銀 모두 호실적
신한, KB저축銀 대표 연임 성공
지주사 혜택으로 안정적 수익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경우 지주계열의 저축은행들은 자산이나 순이익 등이 상위권 저축은행의 규모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하지만 금융권 영업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증권사 등 계열사와의 연계 영업을 통해 무서운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다.

27일 국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인 신한·KB·NH·하나저축은행의 경영공시에 따르면 중금리대출과 개인소매대출, 기업대출 등의 상품 판매를 통해 하나같이 호실적을 기록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저축은행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통해 전년대비 19.3% 상승한 당기순이익 231억원을 기록, 지주계열 저축은행 1위를 달성했다. 2016년 116억원에 비해 3년만에 2배 이상의 이익을 실현한 셈이다. 이어 KB저축은행은 같은 기간 16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110억원 대비 48.18%나 늘었다.

지난해 호실적에 신한저축은행과 KB저축은행의 각 대표들은 모두 연임에 성공하기도 했다. 특히 김영표 신한저축은행 대표는 2+1의 관행을 깨고 4연임을 이었다.

이 외에도 NH저축은행은 전년 대비 41.4% 증가한 181억원을 올렸고 하나저축은행은 161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성적표를 보였다.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은 경쟁사보다 지주사의 혜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사를 지주사가 보유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상품을 지주사 금융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연계 영업이 대표적이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각각 금융지주 계열사로 편입된 저축은행이다. 인수 당시에는 적자에 허덕이는 아픈 손가락이 있었다면 현재는 알짜 수익을 자랑하는 효자 계열사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편 NH저축은행과 하나저축은행의 대표들도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건영 NH저축은행 대표는 오는 6월, 오화경 하나저축은행은 3월에 각각 연임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주 계열 저축은행이 성장 궤도에 올라선 만큼 대표들의 연임 또한 무난하게 성공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한화정밀기계 임직원들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한화정밀기계 獨서 협동로봇사업 확대전략 공유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 개최

한화정밀기계가 협동로봇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유럽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인다.

한화정밀기계는 지난해 8월 개소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유럽 기술센터에서 협동로봇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을 지난 25~26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럽 파트너스 데이 2020'은 한화정밀기계 협동로봇과 관계자들이 현지에서 모여 글로벌 사업 현황과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22개국에서 모인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협동로봇 사업 확대 전략과 판매 정책을 공유하고 개발 로드맵, 우수 사례 등을 발표했으며, 유럽 지역 중 뛰어난 실적을 기록한 대리점을 시상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특히 한화정밀기계 협동로봇은 유럽 매출비중이 약 50%에 이르고 협동로봇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올해 처음으로 독일에서 파트너스 데이를 기획했다고 회사는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엔지니어링, 印尼서 4370억 추가 수주

황회수설비, 수소생산설비 설치
발릭파판 정유공장서 기술 인정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에서 추가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에서 수행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에 황회수설비와 수소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총 4370억원(3억6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현대엔지니어링의 지분은 약 2792억원(2억3000만달러·64.6%)이다.

이번에 수주한 황회수설비(SRU)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H2S)로부터 황을 회수하는 설비이며, 수소생산설비는 고순도의 수소를 생산해 정유공장 설비에 공급하는 설비다.

이번 수주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해 9월 수주해 현재 수행 중인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의 발주처 페르타미나로부터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역량 등을 높게 인정받은 성과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맞물려 현대엔지니어링의 인도네시아 추가 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라며 "이번 수주 실적을 바탕으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플랜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한솔제지 대전공장 증설에 323억… 생산능력 강화

생산설비 내년까지 투자 마무리

한솔제지가 대규모 생산설비 투자를 통해 고급포장재 등에 쓰이는 백판지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화한다.

한솔제지는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대전공장에 있는 백판지 생산설비 확대를 위해 총 323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와 핵심 수출지역인 동남아 추가 공략을 위해서다. 설비투자는 내년 하반기까지 마무리짓는다.

이를 통해 생산량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늘어난 생산 속도에 맞춰 원료공급부터 제품포장까지 공정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다.

백판지는 제과, 제약, 화장품 등 고급 포장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솔제지의 백판지 생산규모는 기존에 연간 71만톤이었다. 이는 국내 시장 점유율만 40%로 한솔제지에 이어 깨끗한나라(26%), 세아(14%)가 각각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백판지 사업을 영위하던 신풍제지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한솔제지는 내친김에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솔제지 관계자는 "이번 설비투자를 통해 백판지 부문의 생산능력을 강화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최근 중국 환경규제 여파로 수출길이 막힌 국내 폐지의 공급과잉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우리銀, 업계 첫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음성OTP 서비스 단점 개선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용 음성OTP(One time password)의 단점을 개선한 디지털OTP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OTP는 빠른 배터리 소진, 음성 미출력 오류, 이어폰 연결불량 등 잦은 고장으로 사용이 불편했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OTP(스마트보안카드) 앱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은행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금융결제원이 공동으로 개발했다.

시각장애인은 우리은행 텔레뱅킹을 이용한 금융거래 시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 푸쉬(PUSH) 알림 ▲앱 실행 ▲6자리 비밀번호 입력 ▲임시비밀번호 자동생성 및 자동입력 순으로 인증이 진행된다. 현재 텔레뱅킹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증 시각장애인을 위해 이번 OTP 서비스를 해당 채널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각장애인용 디지털OTP 서비스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영업점 방문시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본인명의 스마트폰에 디지털OTP 앱을 설치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1사1교 금융교육' 금감원장상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 주최로 진행된 '2019 1사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금융회사 부문과 우수금융회사직원 부문에서 각각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예정된 시상식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고, 금감원장 축사와 수상자 인터뷰 등을 담은 동영상 배포로 대신했다.

1사1교 금융교육은 전국에 있는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가 결연을 맺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한다. 금감원은 매년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 참여해 금융교육 발전에 공헌한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학교, 교사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상자별 필요에 맞춘 주제별 맞춤형 금융교육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영업점 직원들이 참여해 생생하게 들려주는 금융이야기 등을 통해 1사1교 금융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신한은행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금융지식을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금융교육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

/안상미 기자 smahn1@